

“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DMA 위반시 최대 20% 과징금

〈디지털시장법〉

유럽연합, 'DSA 패키지' 완성
디지털시장법, 27개 회원국 시행
메타·애플 등 게이트키퍼 6곳 지정
준수 여부 평가보고서 조사 예정



EU가 지난해 8월 DSA법을 시행한 데 이어 7일(현지시간)부터 DMA법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곳의 빅테크 기업은 DMA법 기준 준수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Pixabay

유럽연합의 'DSA 패키지'가 완성됐다. DSA 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두가지로 이루어진 빅테크 규제 법률이다. 기술패권 시대 많은 나라가 거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선회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EU의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DSA 패키지 완성이 향후 빅테크 기업과 각국의 플랫폼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 패키지' 중 하나다. DSA 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케팅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띄우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백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기준이 되고 각국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 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벅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상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질 썬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TV 등 B2B 특화 제품 온라인 '사업자물' 열어

LG전자가 7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브랜드샵 '사업자물'을 열었다.

사업자물에서는 TV, PC, 모니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등 B2B(기업 간 거래) 특화 제품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모델을 판매한다. 배송·설치까지 지원한다.

LG전자는 연내 ▲요식업·카페 ▲기업 ▲문화·공공 ▲교육 ▲주거·숙박 ▲병원 등 업종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 전용 가전구독 서비스도 연다. 별도의 전문 설치 공사가 필요한 B2B 제품도 판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자물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사업자물'을 누른 뒤 사업자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아우디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

'아우디 RS 6 아반트 GT' 660대 한정 모델 출시

아우디 AG가 7일 RS 6 아반트 라인업 최상급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를 공개했다. 전 세계 660대 한정 모델로 오는 2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최고 성능 라인업인 RS 중 6 아반트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V자 형태 트윈터보 차저 8기통 엔진을 탑재해 2300~4500rpm에서 출력 630마력, 토크 850Nm을 발휘한다. 기본 모델(RS 6 아반트) 대비 출력은 30마력, 토크는 50Nm 각각 증가했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3초로 기존 대비 0.3초 줄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5km다.

4.0 TFSI의 출력은 최적화된 변속 시간을 갖춘 표준 8단 팁트로닉 기어박스를 통해 상시 전륜 구동 콰트로에 전달된다. 연비는 복합(WLTP) 기준 12.2~12.7L/100km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최신형 로킹 센터 디퍼렌셜을 적용해 주행 역학을 개선하고 코너링 정확성을 향상했다.

더 뉴 아우디 RS 6 아반트 GT는 RS 6 GTO 콘셉트 카를 기반으로 디자인됐다.

/양성운 기자 ysw@

“그룹 내 사업역량 결집… 시너지창출로 미래 대비”

구자는 LS그룹 회장, 인터배터리 찾아
전기차 소재·충전 등 EV 생태계 정진



구자는 LS 회장이 지난 6일 LS이모빌리티 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그룹

구자는 LS그룹 회장이 2년 연속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를 찾아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6일 전시장에 방문해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경험하고 참여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전시관을 둘러본 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S는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 솔루션, LS이비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6개 회사가 △Material △EV △ESS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 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SMnM은 이번 전시회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LS이모빌리티 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 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 C&C, 디지털 보험 先 심사 시스템 구현

질병·상해·간병 등 경쟁력 확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지원

SK C&C는 흥국생명에 보험 디지털 선(先)심사와 설계사 맞춤형 영업자동화(SFA)를 구현한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보험 경쟁 환경에 대응하고 질병과 상해, 간병보험 등 새롭게 성장하는 제3보험 시장에서의 디지털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SK C&C는 먼저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심사 선심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결과를 제공해 고객들의 보험 가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설계사들이 고객 사전 고지와 확인된 병력 정보로 고객의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청약 전에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SK가스,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 출시

LPG 충전소 이용 편의 증대

SK가스가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1톤트럭 차주들의 친환경 LPG 1톤트럭 전환 및 LPG 충전소 이용 편의 증대에 나선다.

SK가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LPG업계 최초로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SK가스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와 신형 LPG 1톤트럭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0월 선제적으로 '택배업계 친환경 LPG 1톤트럭 물류 생태계 구축'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친환경 LPG 1톤트럭의 확산 및 택배 사용자들의 편리한 운행·충전 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상생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